

우수 학생 안배해도 공·사립 격차 여전

■ 광주지역 고2 학업성취도 분석해보니

30위권에 상일·문정·광주여고 등 공립 4곳뿐

학교 향상도 사립이 앞서...여고강세 현상 뚜렷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공·사립 고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며 '성적 등급별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했지만, 공·사립간 학력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고2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위 30위 중 공립은 겨우 4곳만 이름을 올린 데서 드러났다.

지난 30일 광주일보가 교육정보공사 사이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광주지역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고교 2학년 학생들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공립보다는 사립이, 남학교보다는 여학교가 높았다.

광주에서 보통학력이상 100%를 달성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송덕고·광주과학고가 2년 연속 100%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99.9%, 99.1%에 그쳤다.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송덕고였다. 송덕고는 수학과 영어에서 보통학력이상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국어에서 99.7%에 그쳐 3년 연속 100% 달성에 실패했다. 대광여고 99.3%(국어 99.8%, 수학 98.4%, 영어 99.8%), 광주과학고 99.1%(국어 98.7%, 수 100%, 영 98.7%), 문성고 98.8%(국어 98.2%, 수 99.1%, 영 99.1%)로 뒤를 이었다.

송덕고·광주과학고·문성고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0%였다. 심각한 학력 부진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의미다.

고려고(98.7%), 광덕고(98.1%), 송일고(97.9%), 대동고(97.8%), 서석고(97.5%), 상일고(97.4%)가 10위권 내에 포진했다.

올해 새로 20위권 내에 진입한 학교는 서석고·인성고·명진고·금호고 등 4개교였다.

이번 평가에서도 '공저사고'(公低私高)와 '여고강세' 현상은 뚜렷했다.

전체 49개 고교 중 상위 30위권에 포함된 공립은 광주과학고·상일여고·문정여고·광주여고 4곳뿐이었다. 지난해 3곳에서 광주여고가 30위권에 진입하면서 4곳으로 늘었다. 나머지 26개 학교는 사립이다.

반면, 최하위권에는 국·공립이 몰려 있다. 30위권 밖에 사립고는 5곳 뿐이다, 나머지 14곳은 국·공립이다.

'학교 향상도' 평가에서도 공립의 학력 하락 현상은 확인됐다.

사립고는 한 곳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향상 현상을 보였다. 반면, 공립은 9개 학교에서 중3 때보다 오히려 학력이 하락했다. 특히, 광주과학고는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떨어지는데다 학교 향상도마저 국어 -1.3, 영어 -4.2로 하락 현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고의 강세도 여전했다. 여고는 상위 30곳 중 14곳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30위권에 들지 못한 여고는 공립 한 곳뿐이었다.

교과별로는 국어·영어는 여학생이, 수학과 남학생이 크게 앞섰다. 국어는 상위 10위권에 대광여고·금호중앙여고·송원여고·동신여고·상일여고 등 5곳이 포진했다. 반면 수학 상위 10위권에는 대광여고 한 곳뿐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모와 대화나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 교사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높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낮았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2014년 시·도교육청별 성취수준 비율

고2	국어			수학			영어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81.6	15.6	2.8	80.0	12.5	7.5	80.4	10.2	9.4
부산	91.0	8.4	0.6	89.8	7.0	3.2	89.3	7.2	3.5
대구	91.9	7.6	0.5	89.9	7.2	2.9	90.6	6.7	2.7
인천	89.9	9.7	0.4	89.1	7.6	3.3	88.9	8.1	3.0
광주	92.0	7.3	0.7	89.6	7.1	3.3	90.5	6.0	3.5
대전	91.1	8.5	0.4	91.6	5.7	2.7	91.5	6.2	2.3
울산	90.1	9.6	0.3	90.0	7.0	3.0	90.5	7.1	2.4
세종	84.5	13.9	1.6	79.9	13.8	6.3	77.2	13.4	9.4
경기	83.5	15.0	1.5	79.4	13.4	7.2	80.7	11.6	7.7
강원	86.9	11.8	1.3	81.2	12.6	6.2	82.2	11.7	6.1
충북	91.9	7.7	0.4	92.7	5.1	2.2	93.0	5.3	1.7
충남	85.7	13.4	0.9	89.4	7.5	3.1	85.6	9.7	4.7
전북	88.6	9.9	1.5	84.8	9.8	5.4	84.4	9.7	5.9
전남	87.8	11.3	0.9	84.9	9.5	5.6	84.6	9.9	5.5
경북	90.9	8.5	0.6	90.1	6.6	3.3	89.6	6.9	3.5
경남	85.5	13.3	1.2	84.3	10.2	5.5	83.1	10.7	6.2
제주	91.2	7.7	1.1	87.6	8.0	4.4	89.0	7.2	3.8
평균	86.5	12.2	1.3	84.5	10.1	5.4	84.7	9.4	5.9

◆ 중학교

중3	국어			수학			영어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86.2	11.0	2.8	68.9	24.5	6.6	76.5	19.1	4.4
부산	88.9	9.5	1.6	71.5	24.2	4.3	78.8	18.7	2.5
대구	90.1	8.6	1.3	73.5	23.0	3.5	80.2	17.8	2.0
인천	90.4	8.4	1.2	69.0	27.2	3.8	77.8	20.5	1.7
광주	84.5	12.5	3.0	67.3	25.9	6.8	75.2	20.6	4.2
대전	88.8	9.4	1.8	70.0	25.1	4.9	77.6	19.5	2.9
울산	90.3	8.7	1.0	72.5	24.1	3.4	80.6	17.8	1.6
세종	86.9	11.3	1.8	60.8	32.8	6.4	72.8	24.3	2.9
경기	87.3	11.0	1.7	64.4	29.4	6.2	74.2	22.4	3.4
강원	84.8	12.9	2.3	57.8	33.7	8.5	67.8	27.3	4.9
충북	89.8	9.2	1.0	68.8	28.2	3.0	78.3	20.5	1.2
충남	86.3	11.8	1.9	59.2	34.6	6.2	70.4	26.5	3.1
전북	84.9	12.0	3.1	62.0	29.6	8.4	69.2	25.4	5.4
전남	84.1	13.2	2.7	60.1	32.4	7.5	69.4	26.3	4.3
경북	88.8	9.5	1.7	69.6	25.8	4.6	76.6	20.7	2.7
경남	85.3	12.3	2.4	65.7	28.6	5.7	73.5	23.0	3.5
제주	88.1	9.5	2.4	71.3	23.9	4.8	77.5	19.0	3.5
평균	87.3	10.7	2.0	66.8	27.5	5.7	75.2	21.5	3.3

제 2수원지 댐 누수현상 정밀안전진단 중단

백화현상 원인 파악 만수위때 다시 진행키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동구 용연동 제 2수원지 댐 누수 현상(광주일보 10월 29일자 6면)과 관련, 진행중인 정밀안전진단을 중단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정밀안전진단이 댐 누수·균열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댐 담수량(50만4000t)의 60% 수준에서 진행해 만수위를 넘어설 때 나타나

는 백화(白化) 현상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수위 상태를 기준으로 세밀한 정밀진단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2수원지 댐 누수 현상 및 콘크리트 균열 등 취약한 안전 상황을 인식하고도 제한 담수량을 지키지 않거나, 예산 문제 등을 내세워 정밀안전진단을 미뤘다가 뒤늦게 추진, 안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1심부터 경륜있는 고참 법관이 재판 맡는다

의료사고 등 '본안 전 증거조사 절차' 제도 도입

사법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1심부터 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한다.

일반 서민이 의료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한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법원이 증거수집을 도와주고 이를 재판에 그대로 사용하는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에는 법관 외에 의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심리에 참여시

켜 재판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 오는 12월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1심 집중' 기조에 따라 재판제도와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2 몰림 13:53
해질 17:20 달림 01:32

오늘날 '첫눈' 내릴까?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부터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차차흐려져 6/7 보성 구름많음 6/7
목포 차차흐려져 5/5 순천 구름많음 7/8
여수 구름많음 7/8 영광 차차흐려져 6/4
나주 차차흐려져 5/6 진도 차차흐려져 7/8
완도 차차흐려져 7/8 진주 차차흐려져 5/5
구례 구름많음 6/6 군산 차차흐려져 4/4
강진 구름많음 6/7 남원 차차흐려져 5/5
해남 차차흐려져 6/7 흑산도 차차흐려져 6/6
장성 차차흐려져 5/6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2.0~3.0	북서	2.0~4.0
남부	남서	2.0~5.0	북서	3.0~5.0
남해	남서	1.0~2.5	북서	2.0~3.0
서부	남서	2.0~5.0	북서	3.0~5.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16	02:05
21:45	14:31	
여수	10:19	04:27
	23:16	16:57

◇주간 날씨

날씨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기온	-2/2	-1/4	-1/4	-2/3	-3/4	-2/7	0/7

광주·전남 첫 눈 소식...12월초 한파 예고

광주·전남지역은 12월 첫날부터 한파가 시작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첫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12월 들어 지상 5km 부근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일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상청은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

로 전망했다. 또 서해상에 눈 구름이 형성돼 1~5일 사이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내륙지방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일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은 4~7도, 최고기온은 4~8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일은 최저기온 -4~0도, 최고기온 1~4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이날 낮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으며 점차 내륙으로 확장하겠다. 예상적설량은 1~10cm, 강수량은 5mm 내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올해도 청소년 산타들

지역 소외계층 찾아

성탄 선물보따리 품다

올해도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어김없이 찾아올 듯하다.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일부터 청소년 산타클로스 30개팀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저소득층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30여곳을 찾아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한다.

올해로 8번째인 '2014 청소년 몰래산

타' 프로그램은 연말, 화려한 조명 아래 들뜬 분위기에 쓸쓸하기만 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진흥센터는 앞서 산타클로스 변신할 청소년 동아리 30개팀을 선정, '산타 학교 발대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비롯, 노래·춤을 결합한 공연, 마술, 풍선아트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물 보따리' 꾸미기에 나선 상태다.

청소년 산타클로스들은 오는 24일까지 '몰래 산타'로 변신해 활동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COLDZERO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COLDZERO TECHNOLOGY

Lafuma Effect

MILLET
061-371-7337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010-3618-9615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